

● 제 1 화

**가장  
신속했던  
사지절단(四肢切斷)  
수술**

마취법이 외과에 도입되기 이전의 수술은 아무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술을 한 의사는 스코트랜드에 있는 「에디버크」의 「로버트리스톤」(1794~1847년) 이었는데 그는 어떤 환자 대퇴부(大腿部)절단 수술을 행하는데, 단 33초가 걸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 빠른 솜씨를 보여준 덕택으로, 이 수술을 돕던 조수(助手)의 손가락을 3개나 잘라 버렸다.

● 제 2 화

**283시간  
잠을 안 잔  
멜베 부인  
이야기**

사람은 굶고는 살지만 자지 않고는

못산다. 전쟁을 하다가도 졸리우면 자야하는 것이 사람이며,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도 운전대를 잡고 달리면서 자야하는 것이 사람이다. 고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고문이 잠을 못자게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과연 사람은 잠을 안자고 얼마나 오래 견딜수 있나?

의학적감시아래 수립된 기록으로서 는 남아연방 「케이프타운」에서 52세 된 주부(主婦) 「벨다·관·델·멜베」 부인이 세운것이 가장 길다. 그녀는 1968년 12월 23일, 282시간 55분의 불면기록을 수립했다. 즉 11일간 18시간 55분이나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용하게 버티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핀랜드」의 「하미나」에서 54세된 부두노동자 「토이미·알도린포이카·실베」란 사람은 1967년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32일 12시간을 한숨도 안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의학적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공인을 못 받고 있다. 그는 하루 27킬로를 걷고, 체중은 15킬로 줄었다고 한다.

영국의 「라이세스타샤·호즈」의 「유스티즈·랏슈워즈·바넷트」(1880년생)이란 사람은 1907년 잠에서 깨어난 이후 한번도 잠자리에 든 일이 없이 58년간 살다가 1965년 1월 8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한다.



### ● 제 3 화

## 382일간 굶고 산 사나이

사람이 12시간을 굶고 참기란 이만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무껍질이든 흙이든 닥치는대로 입에 처넣으며 허기를 면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이다. 심지어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서 먹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도 「사흘 굶고 도적 안되는 놈 없다.」란 말이 있다.

그만큼 굶고 견디기는 어려운 일이란 뜻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단식(斷食)은 정신요법이나 어떤 질병의 치료법으로도 시행하며 데몬스트레이션의 방법으로도 쓰여진다.

실제 경험자에 의하면 첫 12시간 전후가 가장 피로우며, 24~28시간을 경과하면 오히려 마음이 갈아앉아 고통이 잔잔해 진다고 한다.

의학적으로 관찰한 단식의 기록은 「스코트랜드」의 「하이페 · 데이포트」에서 「앙가스 · 발비엘」(1940년생)이 382일간 단식한 것이 기록인데 이것은 1년 하고도 17일간을 더 굶은 셈

이다. 그는 「메어리필드」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1965년 5월부터 1966년 7월까지 단식을 실시했는데, 이 사람은 단식기간중 다만 홍차 · 코피 · 물 · 소다수만을 마셨다. 체중만 그동안 214킬로에서 81킬로로 줄어들었다.

굶봉어도 이 사람앞에서는 놀래 자빠질일 일 것이다.

### ● 제 4 화

## 22년간 22만錠의 약을 먹은 사람

노이로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국 「링컨샤 · 헛킨톤」의 대목장주(大牧場主 「샤무엘 · 제샵」(1752년생)은 1794년부터 1816년까지 22년간에 걸쳐 자그마치 22만 6천 934정의 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1만정을 먹은 셈이며, 22년간 매일 20알의 약을 먹은 셈이다. 「제샵」씨가 세운 자신의 최고 기록 1814년 5만 1천 590정을 먹음으로써 세워졌는데 이해에는 하루 평균 141정을 먹은 셈이 된다. 그러니까 잠자는시간 8시간을 빼면 이 사람은 1시간에 88알씩 약을 먹은 셈이다.

이밖에도 또 4만병의 물약도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65세까지 장수(長壽)를 누렸다.